

# 제1회 순창 참두릅 여행 성료 보건의료 공백 최소화 주력

### 참두릅 테마 다양한 먹거리·체험·문화공연 열려... 9000만원 매출 기록

순창의 봄을 알린 먹거리 축제 '제1회 순창 참두릅 여행'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알렸다.

꽃잔디, 수선화, 튤립이 만개한 생태하천 참두릅을 배경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참두릅을 테마로 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축제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농협이 주관하였으며, 지역 농협(동계, 서순창, 구림)과 농협군지부, 조공법인, 축협이 후원하였고 30여 단체가 함께 참여해 순창의 봄나물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가장 큰 인기를 끈 '참두릅 먹거리 장터'는 순창 참두릅을 활용한 산나물 비빔밥, 두릅 전, 튀김 등 다양한 향토 메뉴로 관람객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참두릅 장아찌 만들기, 썩개떡 만들기, 색깔하기 체험 부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연일 북적였다.

관객 실적 집계에 따르면 이번 축제이틀간 총 9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창의 봄을 알린 먹거리 축제 '제1회 순창 참두릅 여행'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알렸다.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 중 참두릅 판매액만 3,474만 원에 달하며, 지역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먹거리 부스, 체험존, 농특산물 판매도 활발히 이뤄졌으며, 우체국, 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매출이 이어졌다.

또한 친환경 축제로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3만원 이상 구매 시 참두릅 증정 이벤트를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참두릅 축제는 단순한 지역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순창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시보건소, 남원의료원과 의료인력 협약 체결 등 체계 구축

남원시보건소가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이 급감하면서 지방중소도시들의 지역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의과대학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 증가와 현역 군 입대자가 늘어나면서 공보의 자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권고안'에 따라 도서지역과 보건의료원 응급실 등에 우선 배치, 내륙 중소도시의 보건지소는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남원시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올해 공보의가 전년 대비 2명만 감소한 상태이며, 내년에는 단 1명만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원시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남원의료원과 의료인력 협약을 체결(2025.4.17.)하고, 진료의사 2명을 지원받아 보건지소 진료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확보에도 나서서 관리 의사 2명을 직접 채용을 결정했으며,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의 의료인력지원 사업에 공모해 시니어 의사를 확보,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진료 체계 구축에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올 신규 공보의 배치에 따라 4월 14일 월요일부터 관내 보건지소를 4개 권역으로 구분, 공보의 4명이 각 권역을 순회 진료하는 체계를 운영, 이를 통해 보건지소당 최소 주 2일의 진료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진료 실적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거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원시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남원의료원과 의료인력 협약을 체결(2025.4.17.)하고, 진료의사 2명을 지원받아 보건지소 진료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최영일 보건지원과장은 "공중보건의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전북도와의 협력을 강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도 대학생 임실 투어 나서

### 우석대 중국인 유학생 30명 대상 첫 일정 시작

임실군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해 일정 협의를 거쳐 진행된 대학생 임실 투어가 우석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첫 일정을 지난 18일 시작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시작된 이번 임실 투어는 임실N치즈 체험과 임실치즈테마파크 투어를 연계해 임실의 맛과 멋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형형색색 만개한 봄꽃의 옥정

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배경으로 참가한 학생들 모두가 특별한 사진을 남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임실N치즈 체험과 치즈돈가스 시식을 통해 임실치즈의 풍미를 직접 경험했으며, 이어 옥정호로 이동해 꽃대음이 나기 시작하는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해 특별



히 운영되는 전북 도내 대학생 임실 투어는 올해 상·하반기 각 4회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심 민 군수는 "대학생들 간의 활발한 SNS 사진 공유를 통해 임실군의 온라인 홍보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실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소방서, 전북 소방기술경연대회서 우수한 성과 거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최강소방관)에서 순창소방서 황순필 소방교가 2위, 이수빈 소방사가 4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지난 18일 군산소방서 비움119안전센터에서 열렸으며, 도내 소방공무원 11명이 출전해 구조기술 역량을 겨뤘다.

황순필 소방교는 전 종목에서 안정된 기량과 체력을 발휘하며 2위를 기록했고, 이수빈 소방사도 4위에 오르며 순창소방서의 구조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황순필 소방교는 이번 성과로



황순필 소방교 이수빈 소방사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전북 대표로 출전 자격을 확보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제63회 순창군민체육대회' 군민 화합 속 성황리 개최

제63회 순창군민체육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총 1,500여 명의 선수단과 내빈, 응원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개회식에서는 읍·면 선수단 입장곡과 국민의례, 개회선언, 축사와 선수 선서 등이 이어지며 대회의 막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14개 정식 종목과 4개 시범 종목에서 각 읍·면 대표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기량을 뽐냈다. 배구, 율법기, 마라톤 등 전통적인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고리걸기, 한궁, 파크골프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들도 큰 호응을 얻었다. 폐회식에서는 종합 성적 발표 및 시상식, 폐회선언으로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본격 추진

남원시는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저출산 시대 임산부 및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급 기간은 4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임산부는 주문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주소지까지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

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 확인서 등)와 주민등록등본을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예코이볼(www.ecoemail.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이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지사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한미당 큰잔치 성료

지사면이 지난 19일 지사면종합복지관에서 제49회 지사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및 한미당 큰잔치 행사를 심 민 군수, 기관·사회단체장 및 면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민속경기와 농악단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의 기념식에서는 지사면민의 장으로 이용유 씨가 애항장을, 홍영의 씨가 효열장을, 이정석 씨가 봉사장을, 전홍복 씨가 공익장을 수여했다.

기념식 이후에 진행된 체육행사는 주민 간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됐으며, 주민들의 숨은 끼와 기량을 펼치는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 등이 이어져 면민과 향우가 한자리에서 어우러졌다.

김길영 지사면장은 "면민들이 세대 간 경계 없이 서로 소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즐길 수 있는 잔치를 통해 면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한 마음으으 고향의 정을 느끼고 살기 좋은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농기센터,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지역 농작업 지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지역 농작업 지원 활동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여하여,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도왔다.

이번 지원 활동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 단위 '산불 피해 지역 농작업 지원 활동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참여 기관으로 나서 도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했다.

이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직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청송군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지원 기간 남원시 직원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논 밭 경운, 파종 준비 등 주요 영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농기계 운용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농작업 대행의 실효성 높이에 참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